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1호 (2015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장혜인 · 박형인

행위의 수정가능성, 후회 대응 전략과 중년여성의 후회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김지혜 · 정영숙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은희 · 최은실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 · 정은주

자원의 종류가 독재자 게임의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 천영운 · 김혜리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 정석진 · 김명식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1 호 / 2015. 3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장혜인 · 박형인 / 1
행위의 수정가능성, 후회 대응 전략과 중년여성의 후회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김지혜 · 정영숙 / 33
성인에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은희 · 최은실 / 57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 · 정은주 / 81
자원의 종류가 독재자 게임의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	천영운 · 김혜리 / 101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 정석진 · 김명식 / 117

한국발달심리학회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 은 희

경일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최 은 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 4 곳의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대인관계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가 사용되었다. 선행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가능한 경로와 역할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이 제시되었고, 이론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 본 논문은 2014년도 경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ces726@hanmail.net

인간 발달단계는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성되며,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성인기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25세 이후의 성인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rnett(2004)는 이 연령대를 “emerging adults(성인기의 출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을 정체성탐색, 긍정적인 불안정성, 자기에 초점 맞추기, 사이의 끼인 시기, 가능성의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대학생활의 적응, 새로운 관계의 경험 등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인생의 변화기이며, 성인으로서 삶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적응은 성인기 이후의 삶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진다(Schulenberg, Bryant, & O'Malley, 2004; Seiffge-Krenke & Gelhaar, 2007).

물론 대부분의 대학생은 적절한 적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성공적으로 적응하지만 일부는 부적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생생활적응이란 적응(adjustment)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 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정은희, 1992), 대학생생활을 적응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

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하고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정, 1992; Baker & Siryk, 1984; Gerdes & Mallinckrodt, 1994). 대학생생활적응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적 적응은 학습의 동기,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일반적인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의미하며, 뚜렷한 교육목표를 정한 학생들은 학업 지속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Gerdes & Mallinckrodt, 1994).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의 사회적인 생활을 완성해 나가고, 지지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들을 수 있다(Baker & Siryk, 1984). 정서적 적응은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대학에 대한 애착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 결정이 옳은 선택이고 대학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생 역할에 충실하고 대학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Cabrera, Nora, & Casteñeda, 1993). 신체적 적응은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인 적응(체력, 신체 기능 등)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이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유대감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선호하는 특정인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est, Sheldon & Reiffer, 1987). Bowlby가 애착 연구를 통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유아기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성인기의 정신 병리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Bowlby, 1982), 이후 Bowlby(1988)는 성인 애착에 대해 ‘애착 이론

은 유아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특정 행동 경향이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애착 연구의 초기 관심은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에서의 개인차와 그들의 발달적 결과였던 반면(Ainsworth, 1989), 최근에 애착이론은 성인의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에서 하나의 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Hazan & Shaver, 1987; Mallinckrodt, 1992).

성인 애착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정형/불안정형으로 구분되며, 불안정형은 다시 회피, 불안 등으로 구분된다. 안정형/불안정형으로 다시 회피, 불안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애착을 불안(Adult attachment anxiety)과 회피(Adult attachment avoidance)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orthogonal)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성인 애착 불안은 타인에게 거절 받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으로 정의되고, 성인 애착 회피는 타인과 친밀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의존성에 대한 불편함, 과도한 자기 의존성 등을 나타낸다(Fraley & Waller, 1998).

Lopez, Michell과 Gormerly(2002)는 애착 유형의 개인차가 대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안정 애착 대학생은 타인을 더 잘 신뢰하고 내적 안정성이 높지만 불안정 애착 대학생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비일관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며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휘숙(2002)은 청년후기의 심리사회적 적

응은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대학생은 불안이나 회피형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비해 대학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선, 2004; 조수진, 2000). 그 외에도 불안정(회피/불안) 애착 대학생은 더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 학업 집중도가 낮았으며(Kenny & Rice, 1995; Lopez & Brennan, 2000), 대처 전략의 부족(Lopez, 2001;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Lopez & Gormley, 2002). 더 잦은 신체적 질병(Feeney & Ryan, 1994), 정서적 어려움(Kemp & Neimeyer, 1999; Roberts, Gotlib, & Kassel, 1996)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애착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론이 가능한데, 먼저 불안정(회피/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더 많은 주의집중을 하고 타인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정 애착 대학생은 타인과 관계에 적극적이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된다(Priel & Shamai, 1995). 예를 들어, Wei, Russell과 Zahalik(2005)은 불안 애착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덜 활용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더 표현적이고 덜 전체적이었으며, 덜 냉담하고 덜 내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Feeney와 Noller

(1990)는 자아와 인간관계에 대한 과정을 다루는 모델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두 개의 불안정 집단들과 비교해서 안정 집단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관계에서도 다른 집단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Lapsly, Rice와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의 대학생들이 자기 표현력이 높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수줍음이 덜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로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스스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권석만, 2000).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32.1%의 학생들이 '폭넓은 대인관계'라고 응답했다(서강대학교연구원,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능력은 부적응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Luthar, 1991; Werner, 1989). 따라서 대인관계의 유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인격성장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은 급격한 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겪는 혼란스러운 대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애착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는 원인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추론은 애착

이 개인의 자신에 대한 내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안정된 애착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미래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 안정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청년 후기의 변화하는 환경적 맥락 내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인관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Mikulincer & Horesh, 1999). 또한 안정된 애착을 지닌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및 불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artrand, 1990; 김광은, 2004).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학업수행과 학업수행의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학업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eist & Boreski, 1982).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고 중요한 내적자원이 되어 대학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김소영, 1996; 백지숙, 2000).

그렇다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애착이 대학생활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매개변수가 되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질들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통해 갖게 되는 하나

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 구인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므로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민선, 채규만,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태도로 인해 열등감을 갖고 비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Coopersmith, 1967;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인내력, 대인관계능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인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심수정, 2003; 최부일, 2014), 중국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Jin, 2015),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명찬, 2002) 등이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살펴본 연구에는 부모애착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소라, 2003; 조영주, 2015)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애착을 연구 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아닌 성인진입기로서 대학생은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부모애착보다는 성인애착을 연구 변인으로 상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인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구조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적 기제를 알아볼 수 있으며,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안모델로 제시하였다(그림 2). 본 연구에서 부분 매개 모델을 제안한 이유는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하지 않고도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emp & Neimeyer, 1999; Lopez, 2001;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Lopez & Gormley, 2002; Roberts, Gotlib, & Kassel, 1996). 본 연구에서는 제안모델과 두 가지 대안모델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대안 모델 1은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설정하였다(그림 3). 그리고 대안 모델 2는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 매개한다고 설정하여(그림 4) 제안모델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소재 4년제 대학 네 곳을 선정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396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총 372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98	53.2
	여자	174	46.8
학년	1	141	37.9
	2	85	22.8
	3	82	22.0
	4	64	17.2
총합		372	100

측정도구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Baker와 St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맞게 번역 및 수정한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와 조신권(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다섯 개의 하위영역과 다섯 개 하위영역 점수를 더한 전체 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윤정(199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학문적 적응 요인 .79, 사회적 적응 요인 .77, 정서적 적응 요인 .79, 신체적 적응 요인 .95, 대학에 대한 애착 .81로 나타났다.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애착척도는 Fraley, Waller, 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며, 하위 요인은 불안과 회피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요인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회피 요인은 친밀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불안, 회피 요인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불안/회피) 애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김성현, 2004). ECR-R은 총 36문항이며 불안 요인 18문항, 회피 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불안 요인 .89, 회피 요인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요인 .91, 회피 요인 .89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거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문항 5개의 합과 부정적 문항 5개의 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대인관계 척도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을 평가한다. 대인관계능력 검사의 하위요인은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등의 다섯 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처음 관계 맺기 요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주장 요인은 자신의 권리나 불쾌감을 적절히 주장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노출 요인은 개인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적지지 요인은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갈등 다루기 요인은 타인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ICQ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8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창대와 김수임(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4 ~ .7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낮게 나타나 요인 부하량이 낮은 8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0, 처음 관계 맺기 요인 .81, 권리주장 요인 .84, 자기노출 요인 .64, 정서적지지 요인 .75, 대인갈등 다루기 요인 .7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보았고(표 1),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표 및 기술 통계치

측정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학문적 적응	1													
2. 사회적 적응	.63	1												
3. 정서적 적응	.61	.72	1											
4. 신체적 적응	.65	.71	.76	1										
5. 대학에 대한 애착	.70	.71	.70	.68	1									
6. 불안 애착	-.60	-.64	-.69	-.65	-.60	1								
7. 회피 애착	-.61	-.70	-.65	-.66	-.61	.71	1							
8. 긍정 자아존중감	.54	.57	.55	.52	.55	-.58	-.60	1						
9. 부정 자아존중감	.52	.55	.53	.50	.52	-.56	-.56	.66	1					
10. 처음관계 맺기	.51	.60	.50	.51	.49	-.52	-.64	.49	.44	1				
11. 권리주장	.47	.46	.48	.43	.43	-.44	-.42	.41	.35	.50	1			
12. 자기노출	.46	.50	.42	.48	.40	-.43	-.57	.38	.31	.51	.41	1		
13. 정서적지지	.53	.55	.49	.53	.52	-.48	-.54	.45	.40	.49	.40	.51	1	
14. 대인갈등 다루기	.43	.44	.40	.46	.41	-.41	-.38	.36	.36	.35	.24	.35	.68	1
평균	15.40	16.30	17.06	16.12	16.45	61.63	65.70	17.67	17.98	27.11	27.41	23.74	29.00	29.02
표준편차	4.18	3.88	4.71	3.85	3.94	16.63	16.30	2.93	3.32	4.87	4.91	3.50	4.01	3.86
왜도	.17	-.23	.20	.01	-.23	.28	.35	.06	.74	-.11	-.23	-.05	.05	.11
첨도	-.75	-.60	.68	-.88	-.61	-.20	.16	-.47	.80	.23	.71	.87	.00	-.34

참고: 모든 상관 계수는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2), 대학생의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대학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값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89). 그리고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원인변인인 애착,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능력 간의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행렬과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표 2와 같다. 우선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r = .24 \sim .73$,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변인의 분포의 표준 왜도지수의 절대 값이 3.0 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첨도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도가 낮으며 표준첨도지수가 8.0~20.0정도 되면 첨도가 심한 분포로 기술하고 있다(Dearly & Nowakowski, 1999; Kline, 2011). 통계적 검증 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8.0의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 하의 14개 지표 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 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1;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 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χ^2 부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부합도

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부합도, .10이하이면 보통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검증 결과, 부합도 지수가 $\chi^2=266.47$ $df=71$ CFI=.94; TLI=.93; RMSEA=.09로 나타났다. CFI나 TLI는 .90이상으로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보통(mediocre fit)인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χ^2 부합도의 경우 다소 낮게 부합되지만, χ^2 값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이며, CFI, TLI, RMSEA 기준에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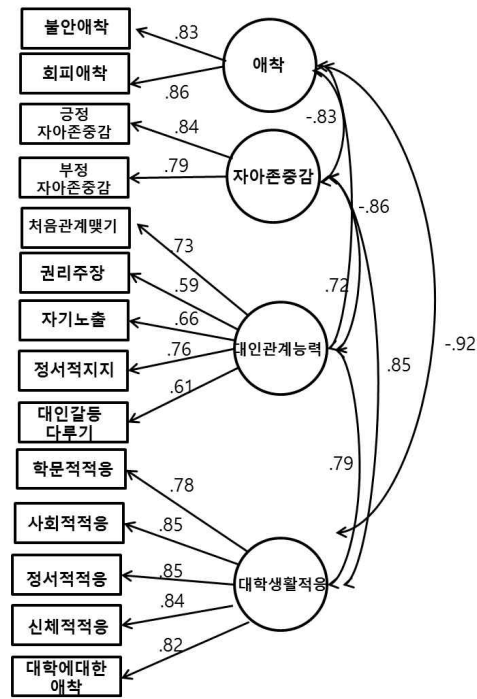


그림 1. 측정 모델

표 3. 측정 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총 모수치 개수)	DF	CMIN	NC(CMIN/DF)	TLI	CFI	RMSEA
측정모델	34	71	266.47	3.75	.93	.94	.09

호하게 부합되고 있어 측정모형을 양호하게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대학생활적응과 애착의 상관계수($r = -.92, p < .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r = .82, p < .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계수($r = .84, p < .01$)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r = -.83, p < .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계수($r = -.86, p < .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낸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계수($r = .72, p < .01$)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변인으로부터 요인들을 설명하는 부

하량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 중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부하량이 .78, .85, .85, .84, .82로 나타났으며, 애착 중 불안과 회피의 부하량이 .83, .86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 자아존중감과 부정 자아존중감의 부하량이 .84, .79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 중 처음관계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의 부하량이 .73, .59, .66, .76,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72 ~ -.92)의 범위를 가지고, 지표변인 간 부하량(설명량)을 살펴보면, 지표 변인별 부하량이 평균 .5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수렴타당도를 만족(문수백, 2009)시켜 각각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 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모형	NPAR(총 모수치 개수)	DF	CIMN	NC(CMIN/DF)	TLI	CFI	RMSEA
제안 모형	34	71	266.47	3.75	.93	.94	.09
대안 모형 1	32	73	290.23	3.98	.92	.94	.08
대안 모형 2	33	72	266.49	3.70	.93	.94	.07

표 5. 대안 모델 1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대학생활적응	-.20*	.00	-.20*	-.86*	.00	-.86*
애착->자아존중감	-.14**	-.14**	.00	-.84**	-.84**	.00
애착 -> 대인관계능력	-.14**	-.14**	.00	-.90**	-.90**	.00
자아존중감 -> 대학생활적응	.45**	.45**	.00	.34**	.34**	.00
대인관계능력 -> 대학생활적응	.92**	.92**	.00	.64**	.64**	.00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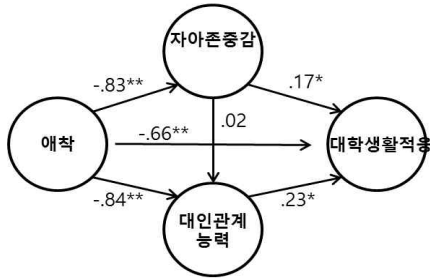


그림 2. 제안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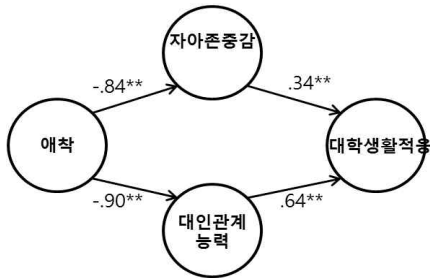


그림 3. 대안 모델 1

제안 모델의 부합도 검증

측정모델의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측정방법을 통해 제안 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하나(표 4) 자아존중감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대안 모델 1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정 결과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경로를

삭제하고,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완전 매개할 것이라는 대안 모델 1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대안 모델 1의 모수치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그림 3). 대안 모델 2의 적합도는 $\chi^2 = 290.23$, TLI=.92, CFI=94, RMSEA= .0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TLI, CF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에 해당하는 RMSEA는 .08로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간접효과(-.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86임을 뜻한다. 둘째, 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4임을 뜻한다. 셋째,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효과(-.9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90임을 뜻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3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34임을 뜻한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6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64임을 뜻한다.

대안 모델 2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정 결과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경로를 삭제하고,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 매개할 것이라는 대안 모델 2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대안 모델 2의 모수치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그림 4). 구정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66.49$, TLI=.93, CFI=94, RMSEA= .0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TLI, CF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에 해당하는 RMSEA도 .07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또한 최종 구조회귀모형은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한 간접 경로가 모두 있는 대안 모델 2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전체효과(-.92) 중에 직접효과(-.67)와 간접효과(-.2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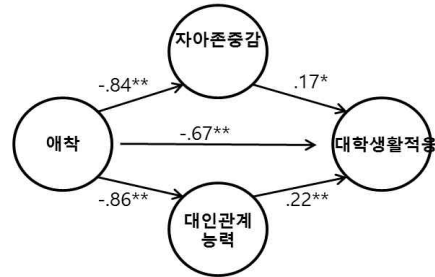


그림 4. 대안 모델 2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67간접효과가 -.25임을 뜻한다. 둘째, 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4임을 뜻한다. 셋째,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효과(-.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6임을 뜻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17임을 뜻한다. 다섯째, 대인관

표 6. 대안 모델 2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대학생활적응	-.21**	-.16**	-.06*	-.92**	-.67**	-.25*
애착->자아존중감	-.15**	-.15**	.00	-.84**	-.84**	.00
애착 -> 대인관계능력	-.15**	-.15**	.00	-.96**	-.86**	.00
자아존중감 -> 대학생활적응	.19*	.19*	.00	.17*	.17*	.00
대인관계능력 -> 대학생활적응	.31**	.31*	.00	.22**	.22**	.00

**p< .01

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2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22임을 뜻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련 변인으로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를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선정한 후,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한 2단계 검증절차로 나누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델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모수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모든 모수치들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본 연구의 측정모델, 즉 측정도구들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제안 모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다. 제안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부합도 지수는 양호하나 자아존중감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대안 모델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고,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완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는 대안 모델 1과 부분 매개하는 대안 모델 2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 모델의 부합도가 낮게 나타나 대안 모델 2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하였다(그림 4).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기술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애착 안정성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통해 형성된 애착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Harmon, Burge, Shannon, Davila, Paley, & Rudolph, 1995)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안정 애착 유형이 회피와 불안 애착 유형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박은경, 1992; 배성희, 2001; 이미경, 2000; 장휘숙, 1997)과 일치한다.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를 보면 애착이 안정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회피적 혹은 불안적인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보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자기노출을 쉽게 한다는(Mikulincer & Horesh, 1999; 강수진, 2011; 권아현, 2000; 신지욱, 2006)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 외에도, 애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불안/회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Wei, Vogel, Ku, & Zakalik, 2005;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Lapsly, Rice와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의 대학생들이 자기 표현력이 높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수줍음이

덜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은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안정 애착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아들보다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최은실, 정선아, 2012).

둘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있으며(King, Tonge, Heyne, Rollongs, Pritchard, Young, & Myerson, 1998; Morrison & Morrison, 1978; Zhang, & Richarde, 1999), 낮은 자아존중감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낮은 학업적 적응, 직업 선택의 어려움, 우울 등-와 관련되어 있다는(Silverthorn & Gekoski, 1995; McFadden, Machina, & Baron, 2000; 최해립, 1999)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자신의 점수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았으며(Morrison & Morrison, 1978), 학생의 역할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 학업적 적응을 저해한다(Chartrand, 1990; 박은민, 2001).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으며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 내려지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요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고 중요한 내적자원이 되어 대학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김소영, 1996; 백지숙, 2000).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보면,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llinkrodt와 Wei(200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권석만(1995)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겪게 되면 대학생활 전반에 불만족과 의욕상실,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큰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시기에 만족스런 대인관계 경험의 누적은 학업 계속 추구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송명자, 2009).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인간관계 부적응에 빠지게 된다. 대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대학생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서강대학교연구원, 2006). 최근 각 대학 상담기관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대인관계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원만한 인격성장에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애착 안정성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착 안정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Allen & Seaman, 2010; Hinderlie & Kenny, 2002; 박현영,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이 성장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지만,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착 안정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이 모두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개입에서 애착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행동문제를 통계 및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에서의 적응이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안정된 애착이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애착이 안정되어 있으면 대학생활 중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은 덜 보이며,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활에서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의 애착 및 애착유형은 이전 발달시기보다 더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애착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대상에 따른 애착 패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집단 상담 형식이나 멘토링 형식의 교육을 통하여 대학환경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이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 접근방법을 차별화하고, 주요 타자에 대한 친밀감, 신뢰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성인애착은 부모애착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이후의 애착 패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고려한다면,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완전한 성인기가 아닌 만큼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안정애착을 가지게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회피 행동, 불안과 소외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 후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적응수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관심, 존중, 자신의 성공적인 경

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학요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때 더욱 잘 적응하려면 자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복지감도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기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정된 애착과 함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애착이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보다 나은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변화된 대학환경 내에서 다양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활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이 요구되고 이전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 등 다른 사람들과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할 경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없으며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최근에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사

례를 보면 학업적 문제나 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이나 학업상의 문제들도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문제를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안정애착인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안정애착의 사람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다 느끼기 때문에 자기노출을 쉽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안정된 애착유형일수록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에서 보다 더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안정된 애착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감능력과 자기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 활동 시간이나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MT기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대학생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내에서는 학생상담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아리모임, 학생회, 학교 신문사나 방송국 일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길이 개방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자신을 적절히 개방할 수 있을 때, 남에게 호감을 줄 뿐 아니라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의 표집에 있어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도시의 대학생 집단이나 국내의 전체 대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집단을 살펴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주관적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응답이 긍정적인 문항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적 요인 등으로 왜곡되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애착정도와 개인의 특성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보완되고 다양한 연구방법이 개발되어 설문지 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활부적응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휴학, 자퇴를 한 학생들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수진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권아현 (2000).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1992).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찬 (2002).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 (1993). 대학생들의 학업적, 심리적 적응: 일 년간 추적연구. 연세상담연구, 9, 87-127.
- 김창대, 김수임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71-490.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 (2001). 대학생생활적응과 부모-자녀 간의 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43-55.
- 배성희 (2001).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19, 17-36.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5, 127-137.
- 서강대학교연구원 (2006). 2005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학술저널, 27, 127-155.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지욱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선 (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윤정 (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 (2002). 애착과 SOC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103-117.
- 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2015). 대학생의 애착, 자동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부일 (2014). 중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정선아 (2012).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43-464.
- 최혜림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83-197.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llen, I. E., & Seaman, J. (2010). Class Differences: Onlin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0. *Sloan Consortium*.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s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Y: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Cabrera, A. F., Nora, A., & Casteñeda, M. B.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st of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persist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 123-139.
- Chartand, J. M. (1990). A casual analysis to predict the person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nontradi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65-73.
- Coopersmith, S. (1969).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ounseling children in group: A for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DeCarlo, D. K., & Nowakowski, R. (1999). Causes of visual impairment among students at the Alabama School for the Blind. *Journal of the American Optometric Association*, 70(10), 647-652.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eeney, J. A., & Ryan, S. M. (1994).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Relationships with health behavior and family experiences of illness in a student sample. *Health Psychology*, 13, 334-345.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74-114. NY: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eist, C. R. & Borecki, S. (1982).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s a Predictor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3), 611-613.
- Gerdes, H. & Mallinckrodt, B. (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3), 281-288.
- Harmmen, C. L., Burge, D., Shannon, E., Davila, J., Paley, E.,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36-44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inderlie, H. H., & Kenny, M. (2002).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Black students at predominantly White universi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3), 327-340.
- Jin, X, X (2015).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중국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emp, M., & Neimeyer, G. (1991). Interpersonal attachment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ist, 23*, 433-456.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33-456.
- King, N. J., Tonge, B. J., Heyne, D., Pritchard, M., Rollings, S., Young, D., & Ollendick, T. H. (1998).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chool Refusing Children: A Controlled Eval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4), 395-403.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dord Press.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ce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8*(5), 561-565.
- Lopez, F. G.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self-other boundary regulation, and splitting tendencies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40-446.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hip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Lopez, F. G., Mitchell, P., & Gormley, B. (200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0-467.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3), 600-612.
- Mallinckrodt, B. (1992).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the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53-461.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58-367.
- McFadden, D., Machina, M. J., & Baron, J. (2000). Rationality for economists?. In *Elicitation of Preferences*. p73-110. Springer Netherlands.
- Mikulincer, M. & Horesh, N. (1999).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 Perception of

- Others: The Role of Projective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022-1034.
- Morrison, T. L. & Morrison, R. L. (1978). Self-Esteem, Need for Approval, and Self-Estimates of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43(2), 503-507.
- Murray, S. L., Holmes, J. G., & Collins, N. L. (2006).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2(5), 641-666.
- Priel, B., & Shamai, D. (1995).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s on affect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235-241.
- Roberts, H.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220-12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lenberg, J. E., Bryant, A. L., & O'Malley, P. M. (2004).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ate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119-1140.
-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7). Dose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A test of Harvighurst's 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4, 1-20.
- Silverthorn, N. A., & Gekoski, W. L. (1995). Social desirability effects on measure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2), 244-251.
- Wei, M., Russell, D. W., & Zh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602-614.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Personality*, 59(1), 72.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12), 738-741.
- Zhang, Z., & Richarde, R. S. (1999). Intellectual and metacognitive development of male college students: A repeated measures approa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6), 721-738.
- 1차원고접수 : 2015. 01. 14.
수정원고접수 : 2015. 03. 04.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7.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Eun-Hee Park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Welfare
Kyungil University

Eun-Sil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s adaptation to college,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ipants were 372 college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four colleg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adult attachment affected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fected adaptation to college; and 3) adult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which w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college, mediation model